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재 외 선 거 신고·신청 안내

Overseas Voting for the 19th President Election

2017년 5월 9일 (재외투표 : 2017. 4. 25. ~ 4. 30.)에 실시하는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재외선거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내에 빠짐없이 등록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족, 친구 등 주변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하려면 신고·신청을 해야 합니다.

Apply to register as an overseas absentee or an overseas voter.



2017년 3월 30일 까지



재외선거권자 란:

Who qualifies as an overseas voter?

▶ 국외부재자 Overseas Absentee: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예: 기업상사 주재원, 유학생, 여행자 등)

*Those who want to vote abroad as a Korean citizen who are registered as a resident in the Republic of Korea.
(e.g.: Employees of Korean corporations or Trading Companies Working Abroad, Students Studying Abroad, Tourist)*

▶ 재외선거인 Overseas Voter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주민등록 말소자 포함)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예: 영주권자 등)

Voters who are not registered as a resident in the Republic of Korea (e.g.: Permanent Residents)



신고·신청 방법:

How to apply or register



▶인터넷 이용 (<http://ok.nec.go.kr>)

Online (<http://ok.nec.go.kr>)

▶우편 / 전자우편 (e-mail) 이용

By Post / Via E-Mail

▶공관 방문

Walk in registration at a diplomatic office

▶순회접수 장소 방문

Submission at a circulating diplomatic office

순회일자	순회지역	접수장소	접수시간
3.18 (토)	산호세 및 인근지역	실리콘밸리한인회	오후 1:00 ~ 4:00
3.19 (일)	새크라멘토 및 인근지역	새크라멘토한인회 한인교육문화회관	오후 1:00 ~ 4:00
3.25 (토)	몬트레이 및 인근지역	몬트레이한인회	오후 12:00 ~ 4:00
3.26 (일)	덴버 및 인근지역	주간포커스 문화센터	오후 1:00 ~ 5:00

※ 3월 29일 (수, 오후 12:30 - 3:00)에 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산호세 영사순회 업무가 실리콘밸리 한인회에서 실시됩니다. 3월 28일까지 신고·신청을 못하시고 또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지 못하신 분들은 3월 29일 한인회 사무실을 방문하시면 접수 가능합니다.

※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재외선거인은 별도 신청 불필요. 단, 국외부재자는 종전과 동일하게 매 선거 때마다 신고하여야 합니다.

문의: 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415) 921 - 2251 / (415) 590 - 4083



당신의 한걸음이 필요합니다



2016년 11월 8일 미국 대선과 함께 치러진

연방하원의원 선거에서 9선 도선에 나왔던, 그동안 한국입장을 대변해 온 '위안부 지킴이' 마이크 혼다 의원을 물리치고 당선된 로 카나 의원(인도계 변호사 출신)과, 실리콘밸리 한인회 문화원의 차세대분과를 담당하고 있는 케빈 박이 다음과 같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캐빈 박:

저는 이번에 연방하원의원과 인터뷰를 하게 된 케빈 박입니다.

우선, 미국내의 아시안들 중 한국인에 대한 '잘 보이지 않는 소수민족' 이란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한국인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부각되고 적극적인 민족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로 카나:

최소한 저에게는 한국인이 잘 보이지 않는 소수민족이 아닙니다. 엔지니어들만 보아도 한국인은 똑똑하고 교육열이나 과학수준이 높아 이곳에서나 한국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여러 분야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25 - 34세 중 63%가 대졸자들입니다. 미국도 과학이나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는 한국을 그런 면에서 따라가도록 노력하고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캐빈박:

한국과 미국은 각각 다른 리소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서로 교육, 사업, 문화교류에 잘 적용해 글로벌한 교류와 발전을 기여할 수 있을까요?

로 카나:

저는 파트너십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한국의 최첨단 과학분야 등 본받을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모델 삼아서 보충하고 협력한다면 한 단계 나가는 글로벌경제가 실현되며 더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모든 시스템의 자동화, 운전자 없는 차, 인공지능은 한국도 뛰어나기에 그런 분야에서 함께 파트너십을 발휘해 협력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캐빈 박:

어떠한 정책이 현재 동양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남 차이나 해, 남북관계라던가 그러한 분열을 도울 수 있다고 보시나요? 한국의 거리에 보이는 군인들의 모습 등은 미국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나 저희는 신경 쓰일 수 밖에 없습니다.

로 카나:

20세기의 분열과 각 나라 간의 전쟁이 또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세계평화와 글로벌교류와 협력에 치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21세기는 민족과 인종을 넘어 함께 더 중요한 것에 신경써야 할 때라고 봅니다. 한국이 항상 북한의 침략위협에 있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리하여 이곳 실리콘밸리처럼 각 나라 민족이 모여 사는 멜팅 팟으로 불리우는 미국은 세계평화와 발전을 방해하며 위협하는 국가가 있다면 적극 남한을 포함한 그러한 나라들을 도울 것이며 중국과의 관계도 신경써야 할 것이며 저도 미국의 그러한 정책을 적극 지지할 것입니다.

캐빈 박:

소수민족 연방하원의원으로써 어떠한 방법으로 커뮤니티와 소통할 것이며 그런 것을 통해 어떤 일을 하고 싶고 커뮤니티에 어떠한 업적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로 카나:

우선 저는 자주 타운 홀 미팅 또는 거리감 없이 캐주얼한 커피샵 미팅, 이메일 등을 통해 커뮤니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듣는 소박한 이 지역의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이민, 소셜 시큐리티 등 더 나아가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대학교육, 직업교육, 최첨단 과학 교육경장 등에 적극 나설 것이며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캐빈 박:

젊은이들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노인들이 늘어남에 따라 노인을 위한 의료 프로그램, 소셜 시큐리티에 대한 하원의원님의 견해도 중요하기에 듣고 싶습니다.

로 카나:

제 부모도 70이 넘었고 퇴직했으며 펜실베이니아에서 소셜 시큐리티에 의존하고 계십니다. 이 동네는 집값과 생활비가 높아 지금의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으로는 턱도 없이 모자랍니다. 월 스트리트에서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 소셜 시큐리티나 노인들을 위한 정책에 도움이 되는 세금도 그리 많이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노후보장을 지지하고 액수를 올리기 위해 강한 목소리를 낼 것이며 실천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캐빈 박:

마지막으로 로 카나 의원님과 한인 커뮤니티와의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는 우호관계를 바랄 뿐입니다.

로 카나:

예, 당연히 저도 그렇습니다. 전 연방하원의원 마이크 혼다와의 절친한 관계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이 위안부 등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 했던 일들을 저도 계속 지지할 것입니다. 특히, 한인 커뮤니티가 교육열이 높고 교육에 많은 여러 방면의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캐빈씨가 한인으로서 두 번 산타 클라라의 시의원에 도전했다는 사실을 존중합니다. 아브라함 링컨도 한번에 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더 좋은 기회로 발판 삼아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캐빈 박: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의원님이 한국에 한번 가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와 시설이 아주 잘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자그마한 신경 써주는 마음과 정 책을 바다 건너 미국에서도 실현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로 카나:

물론입니다. 꼭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ranslated By Camille Jung (L) , Director,
Silicon Valley Korean American Federation
Cultural Center

Interviewed by Kevin Park (R), Director
Silicon Valley Korean American Federation
2nd Generation Leadership Program.

West Valley Community Services 에서 다음과 같은
사회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브라운 백,
- 캐이스 매니저와 일-대-일 상담,
- 긴급 재정지원,
- 저렴한 버스패스, 공공주택, 특별프로그램 등에 관한 서비스 등

우편번호 해당 지역: 95014, 95030, 95032, 95033,
95044, 95070, 95129. 95130

위에 적힌 우편번호에 해당이 안 되어도 한인회에 연락 주시면 해당지역으로
연결해 드리면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리콘 밸리 한인회
합창단

단원모집

문의: 실리콘밸리 한인회
(408) 244 - 2400

다가오는 이벤트:

**실리콘 밸리
하계 야유회**

일시/장소: 추후 광고

실리콘 밸리 “월” 한인 포럼 (forum)

4월 22일, 토요일, 10:30 AM ~

주 제: (차후 광고)

초청 연사: (차후 광고)

실리콘밸리 한인회 이모저모

2017년 3월 1일 삼일절 기념 행사



2016년 12월 16일 송년의 밤 (한인회 문화원 재충분)

